



안세영이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 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1000 태국오픈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소니아 차이(말레이시아)를 2-0(21-15 21-12)으로 가볍게 누르고 16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안세영, 성인무대 데뷔전 '굿 스타트'

광주체고 졸업 후 첫 출전 태국오픈 여자단식 32강전서 말레이시아 선수 2-0 제압

배드민턴 천재 소녀로 주목받은 안세영(19·삼성생명)이 광주체고 졸업 후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쾌조의 출발을 했다. 안세영은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배드민

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1000 태국오픈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소니아 차이(말레이시아)를 2-0(21-15 21-12)으로 가볍게 누르고 16강에 올랐다. 안세영은 광주체고 3학년이던 2017년 12월 성인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 태극마크를 달았다. 광주체고에 진학한 이후에도 성인 대표팀에서 활약하며 2019년 프랑스오픈 우승 등 5개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여자단식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월 동결된 세계랭킹에

서 안세영은 여자단식 9위를 차지하며 2020 도쿄 올림픽 메달 기대도 밝혔다. 안세영은 이달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실업팀인 삼성생명에 입단, 정식 시니어 선수로 새 출발 했다. 태국오픈은 안세영이 올해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4위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은 아말리에 마젤론-프레자 라본(덴마크)을 2-0(21-10 21-17)으로 완파하고 16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팀 소속은 아니지만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이용대(오넥스)-김기정(당진시청)은 샷샤이 라즈 판키게다-치라그 셰티(인도)에 1-2(21-19 16-21 14-21)로 역전패를 당해 16강에 합류하지 못했다. 혼합복식 서승재(삼성생명)-채유정(인천국제공항)은 상대인 아담 하림 열기말-도하 하니(이집트)조 중 알가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기권, 경기를 치르지 않고 16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나훈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재선

나훈(74·사진)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4년 더 광주 야구를 이끈다. 제12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에 나훈 후보가 당선됐다. 단독후보로 출마한 나훈은 13일 광주시체육회 인준을 받으면서 4년 동안 협회장직을 수행한다. 1998년 3대 협회장을 역임했던 그는 지난 2013년 10대 협회장을 맡아 14년 만에 야구계에 복귀했다. 또 2016년 체육단체 통합 당시 초대 야구소프트볼 협회장직을 지냈으며, 체육회 이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감사직 등을 수행했다. 나 회장은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튼튼한 협회를 만드는 등 광주시야구 발전에 이바지하며 3선



(통합체육회 이전 포함)을 이뤘다. 나훈 회장은 "지난해 광주에 하나밖에 없는 무등경기장이 지하주차장 공사로 인해 2년 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야구장 또한 없어 작년에는 합평에서 대회를 치르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며 "하루 빨리 대체야구장과 무등경기장이 완공되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야구장다운 야구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코트의 악동' 로드먼의 딸, 미국여자축구 드래프트 참가

과거 '코트의 악동'으로 불렸던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60)의 딸이 축구 선수로 프로의 문을 두드린다. 13일(한국시간) 미국 ESPN 등에 따르면 로드먼의 딸 트리니티 로드먼(20)은 14일 예정된 2021년 미국여자축구리그(NWSL) 드래프트에 참가를 신청했다. 로드먼이 세 번째 부인 미셸 모이어와의 사이에 낳은 딸인 트리니티 로드먼은 미국 연령별 대표를 거친 공격수 유망주다. 2018년 17세 이하(U-17) 월드컵에 출전했고, 지난해 북중미카리브연맹(CONCACAF) 20세 이하(U-20) 챔피언십에선 8골 6도움으로 미국의

우승을 이끌었다. ESPN은 "트리니티 로드먼은 청소년 대표팀에서 스피드와 결정력을 뽐내며 오래전부터 두각을 나타냈다"면서 "그는 1라운드 지명어 기대되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아버지 로드먼은 NBA 시카고 불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등에서 뛰면서 5차례나 챔피언 반지를 끼고 농구 명예의 전당에도 입회한 스타 플레이어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성추행, 공부집행 방해 등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키며 '악동'으로 이름을 날렸다. 여러 차례의 방북, 감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친분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시프린, 알파인 월드컵 68번째 우승

남녀 통틀어 최다승 3위

미케일라 시프린(26·미국·사진)이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에서 통산 68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시프린은 1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플라차우에서 열린 2020-2021 FIS 월드컵 알파인 여자 회전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47초92로 우승했다. 2위 카타리나 린스베르거(오스트리아)를 0.19초 차로 따돌린 시프린은 지난해 12월 대회전 경기 이후 이번 시즌 두 번째 월드컵 정상에 올랐다. 시프린은 또 통산 월드컵 우승 횟수를 68회로 늘려 남녀를 통틀어 최다 우승 단독 3위가 됐다. 이 부문 1위는 남자부 잉에마르 스텐마크(스웨덴)의 86승, 2위는 여자부 린지 본(미국)의 82승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시프린은 남자부 마르셀 히르셔(오스트리아)와 함께 67승으로 공동 3위였다. 스텐마크와 본, 히르셔가 모두 은퇴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시프린이 수년 내 통산 1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역 선수로는 남자부 알렉시 팽투로(프랑스)가



33승, 여자부 라라 구트(스위스)가 27승으로 시프린의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재일교포 3세 안창림, 일본의 자존심을 메치다

연장 접전 끝 하시모토 꺾고 도하 마스터스 유도대회 우승 일본 귀화 요청 뿌리치고 2014년 한국으로 건너와 "올림픽 우승해 애국가 듣고 싶다"

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 안창림(필룩스·세계랭킹 13위)이 일본의 자존심 하시모토 소이치(세계랭킹 2위)를 다시 한번 꺾고 도쿄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안창림은 13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루사일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1 도하 마스터스 대회 둘째 날 남자 73kg급 결승전 하시모토와 경기에서 연장전(골든스코어) 접전 끝에 반칙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문제 탓에 11개월 만에 국제대회에 참가했지만, 녹슬지 않는 기량을 과시하며 금메달과 함께 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랭킹 포인트 1800점까지 획득했다. 안창림은 불리하게 경기를 시작했다. 경기 시작 40초 만에 지도(반칙) 한 개를 받았다. 정규시간 종료 2분 27초를 남기고 시도한 업어치기도 하시모토의 수비에 막혀 포인트로 연결되지 않았다. 안창림은 정규시간 4분을 모두 보낸 뒤 연장 승부를 펼쳤다. 상황은 더 악화했다. 그는 연장전 1분 57초에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치다 하시모토와 지도 한 개씩을 나란히 받았다. 지도 한 개를 더 받으면 반칙패를 기록할 수 있는 벼랑 끝 상황이었다. 그러나 안창림은 특유의 강한 체력을 앞세워 하시모토와 힘 싸움을 이어갔다. 승부는 다소 허무하게 갈렸다. 하시모토는 연장전 3분 40초에 안창림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위험



안창림이 13일 카타르 루사일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1 도하 마스터스 대회 결승전에서 하시모토 소이치의 업어치기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하시모토는 안창림의 팔을 잡아당겨 반칙패했다. /연합뉴스

한 기술을 시도했다. 안창림은 통증을 느낀 듯 소리를 질렀고, 심판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을 썼다며 하시모토에게 반칙패, 안창림의 우승을 선언했다. 안창림과 하시모토의 인연은 깊다. 재일교포 3세인 안창림은 2013년까지 일본에서 뛰다가 일본의 귀화 요청을 뿌리치고 2014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안창림은 2013년 전일본학생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뒤 한국 용인대로 편입했는데, 해당 대회 결승에서 만났던 선수가 하시모토다. 이후 안창림은 국제대회에서 하시모토와 두 차례 만나 모두 패했지만, 2018년 5월 중국 후허하오터

그랑프리 대회 결승, 2018년 9월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승리하며 전세를 역전했다. 하시모토는 최근까지 이 체급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최강자다. 다만 해당 체급에서 하시모토와 '쌍벽'을 이루는 일본의 오노 쇼헤이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안창림은 오노에게 상대 전적 6전패를 기록할 만큼 약한 모습을 보였다. 안창림은 하시모토, 오노를 넘어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도쿄 무도관은 일본 전국대회 첫 우승을 했던 장소"라며 "꼭 금메달을 획득해 애국가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자프로테니스 시즌 개막전 우승자는 사발렌카

아리나 사발렌카(10위·벨라루스)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2021시즌 개막전 우승을 차지했다. 사발렌카는 13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WTA 투어 아부다비 오픈(총상금 56만5530달러)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베로니카 쿠데르메토바(46위·러시아)를 2-0(6-2 6-2)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사발렌카는 지난해 10월 오스트라바 오픈, 11월 린츠 레이디스에 이어 올해 개막전까지 제패하며 최근 출전한 3개 대회 연속 우승, 15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6만8570달러(약 7500만원)다. 사발렌카는 다음 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7위까지 오르게 됐다. 쿠데르메토바는 생애 처음으로 투어 대회 단식 결승에 진출했으나 사발렌카의 최근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사발렌카와 쿠데르메토바는 나란히 호주 멜버른으로 이동, 2월 8일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을 준비할 예정이다. 올해 호주오픈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호주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이엠히어
2관	#아이엠히어
3관	빛의 아버지: 파이널 판타지 XIV, 도굴
4관	아이 엠 우먼
5관	늑대와 춤을, 빅풋 주니어2: 패밀리가 떴다
6관	윈더 우먼 1984
9관	조제, 완벽한 가족
7관 씨네마	신과함께-죄와 벌
8관 씨네마	미스터 존스, 이웃사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 국악상설공연

창작공연 작품공모

2021 광주국악상설공연 창작공연작품을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국악공연에 관심이 있는 예술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1. 1. 11.(월) ~ 1.20.(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10:00 ~ 17:00)
접수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
문의 | 062-613-8379